

신임공무원의 성격특성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이진환

사단법인 한국공공행정원 부원장

A Study on the Effects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A New Public Official on Academic Burnout

Jin-Hwan Lee

Vice President, Dept. of Th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Institute

요약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민의 안전은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특히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해양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 해양이라는 특수성과 위험성으로 인해 해양경찰의 교육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신입 교육 과정은 재직하는 동안 직무와 연결되기 때문에 교육 성과와 관련이 있는 요소는 더욱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신입 해양경찰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성격특성과 학업소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성격특성 5요인 중 신체적 고갈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외향성 요인, 신경성 요인, 정서적 고갈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외향성 요인, 신경성, 냉소주의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신경성과 개방성 요인, 성취감 저하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외향성 요인, 신경성 요인, 성실성 요인이었다. 특히 학업소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 5요인은 신경성으로 나타났다. 신입해양경찰공무원의 교육적 만족과 효과를 위해서는 신입해양경찰공무원의 심리적 여유와 스트레스 최소화 방안이 필요하다.

키워드 : 해양경찰, 신입해양경찰공무원, 성격특성 5요인, 학업소진, 신입해양경찰교육

Abstract Public officials are volunteers for the people, and the police are in charge of the safety of the people. In particular, the marine safety of Korea, which has three sides of the sea, is very important. The education of maritime police is a very important factor due to the specificity and risk of the sea. In particular, since the new curriculum is linked to the job while in office, factors related to educational performance are more important. In this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academic burnout was examined for 200 new maritime police officials. Among the five factors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extroversion factors, neurotic factors, and emotional exhaustion factors were extroversion factors, neurotic factors, and cynicism factors, and extroversion factors, neurotic factors, and integrity factors. In particular, the five factors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that have the greatest influence on academic burnout were neurotic. For the educational satisfac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new maritime police officer, it is necessary to minimize the psychological margin and stress of the new maritime police officer.

Key Words : Marine Police, New Marine Police Officer, Personality Characteristics 5 Factors, Academic Exhaustion, New Marine Police Education

*Corresponding Author : Jin-Hwan Lee(baboo8063@daum.net)

Received August 2, 2022

Accepted August 20, 2022

Revised August 19, 2022

Published August 28, 2022

1. 서론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 지위로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사회의 안전과 관련된 직무는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특히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해양 안전은 국가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해양 안전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해양 안전을 담당하는 대표 기관은 해양경찰이다. 해양은 장소에서 오는 위험성 등 다른 기관과는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해양 경찰의 교육은 내용과 과정에서 다른 기관과 일정한 차이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교육 효과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신입공무원 교육은 조직적으로 성과에 직결되며, 그 영향력은 직무를 담당하는 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교육의 중요성은 당연하다. 조직의 새로운 자원 유입은 교육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교육적 성과가 모든 신규 자원에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개인적 특성에 따라 학업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신입해양경찰공무원은 해양경찰 교육원이라는 장소에서의 단체 교육과 정해진 교육 기간에 교육 이수율과 평가 그리고 졸업이라는 단계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반 기업체의 신규 자원보다는 학업 등 더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신입해양경찰공무원의 성격특성에 따른 다양한 관련 요소와의 관계는 해양경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제이다. 신입해양경찰공무원의 교육은 일반인에서 해양경찰관이라는 전문 영역으로 변화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교육적 성과에 따라 해양경찰의 발전에 직간접적인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특히 개인적 성격특성에 따라 교육 결과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1]. 신입해양경찰공무원은 해양경찰 교육원이라는 다소 생소한 장소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에 있기에 그동안의 성격과 새로운 환경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격특성과 학업소진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소진이란 대해 일반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능력이 저하되는 상태를 의미한다[2]. 이에 신입해양경찰공무원의 학업소진이 지속적인 경우 심리적 문제로 인한 삶의 질 저하, 직무 열정 및 동기 감소와 함께 교육적 효과 감소 및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성격특성과 학업소진에 대한 선행연구에

서는 대학생 등 학생 위주를 대상으로 하였고 소진의 경우는 직장인들의 직무소진에 대한 접근이 대부분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신입해양경찰공무원의 성격특성과 학업소진이라는 대상적 측면에서 기존 선행연구와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신입해양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생이 계속 입교하는 상황에서 학업소진은 교육과정 및 실무에서 여러 가지 결과를 위해 필요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신입해양경찰공무원의 성격특성과 학업소진은 모두 다르므로 심리적 문제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 또한 모두 다르겠지만, 공통되고 확실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신입해양경찰공무원의 성격특성에 따른 학업소진과의 관계를 알아본다는 것은 교육의 결과적 측면과 아울러 해양경찰 조직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연구라 할 수 있다. 해양경찰관의 임무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높은 교육 성과가 담보되어야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신입해양경찰공무원의 교육과정은 해양경찰이라는 전문가로 임용되기 이전의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신입해양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격특성이 학업소진에 대한 영향을 통해 신입해양경찰공무원의 교육적 효과를 위한 방안과 교육과정 중 학업소진의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1].

2. 이론적 배경

2.1 성격특성

18세기 이후에나 개념 정립이 시작된 성격은 개인별로 나타나는 특별한 감정, 의지, 행동으로서 인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성격은 타인과 구별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으로 행동, 사고 및 감정이 독특하지만 안정된 형태로 나타나는 개인의 고유한 정신적 구조를 의미한다[3-6]. 성격특성은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접근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7,8]. 일반적으로 성격특성의 연구는 성격특성 5요인으로서 외향성, 신경성, 성실성, 개방성, 친화성이라는 5개의 요인(Big-Five)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요인은 개인적 차이와 개인의 행동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9]. 구체적으로 성격특성 5요인 중 외향성(Extraversion)은 대인관계에서 나

타나는 활동성, 모험성 등이 관련된 요소로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활동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 특성은 열정적이고 행동 지향적 특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직무성과 교육 성취도 등에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0]. Bernerth, Armenakis, Feild, Giles & Walker(2007)는 외향성에 대해 높은 사회적 참여도와 함께 타인 등 조직 구성원들의 관계를 양호하게 형성하게 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특성으로 보고 있다. 이와는 반대인 외향성이 낮은 사람은 말이 없어서 조용하고, 억제적 성향의 특성이 있다[11].

친화성(Agreeableness)은 타인에 대한 신뢰와 존중, 관계 유지를 의미하며 인내심, 배려, 양보 등과 관련이 있는 요소로서 친화성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 관계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친화성이 높을수록 직무 만족과 상사에 대한 만족이 높게 나타난다[12]. 반면 친화성이 낮은 경우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질투심이 높은 특성이 있는데, 자기 중심성이 강할수록 친화성이 낮음을 나타낸다. 또한 친화성이 낮다는 것은 타인을 불신하고 경쟁적인 특성을 보인다[3].

신경성(Neuroticism)은 정서적으로 민감한 정도(Emotional Stability)로서 불안, 우울, 충동성과 관련이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부정적 정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13]. 신경증이 높은 경우는 부정적 감정으로 인해 정신적 병리 현상이 높은 특성이 있지만, 낮은 경우는 심리적 이완 현상으로 평온하고 침착한 특성이 있다. 그러나 신경성이 부정적 반응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높은 신경성은 일반인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반응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 행동에 대한 주의력과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려는 치유적 행동으로 연결되기도 한다[14,15].

성실성(Conscientiousness)은 조직 내 규칙을 준수하려는 개인적 정도로 직무를 완수하고자 하는 높은 의지로서 조직적이고 근면한 특성을 나타낸다. 성실성은 조직몰입과 관련이 있는 특성으로 경찰관, 전문가 직종에서 높은 관계가 있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16,17]. 성실성이 높은 경우 문제에 대해 논리적으로 분석과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특성이 있는 반면에, 성실성이 낮은 사람은 행동에 일관성이 없고 게으르고 우유부단한 특징이 있다[18].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은 새로운 경험과 사고에 대한 수용의 정도를 의미한다. 개방성은 창

의력과 관련이 있는데, 지적 자극과 다양성을 좋아하는 정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높은 개방성은 도전적·창의적·자율적 특성이 있으며 상상력과 교양이 풍부하고 지적으로 호기심이 많고 민감한 특성이 있다[3].

2.2 학업소진

소진을 최초로 사용한 학자인 Freudenberger(1974)는 자신의 노력에 비해 기대하였던 성과나 보람보다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좌절감을 느끼는 상태가 소진으로서 신체적 및 정서적 소진을 유도한다고 정의하였다[19]. 이후 Maslach & Jackson(1981)은 MBI(Maslach Burnout Inventory)를 개발하면서 인간 행동의 소진 연구가 진행되었다[20,21]. Freudenberger(1974)에 따르면 소진이 높은 사람은 민감하고 내성적이며 다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감정어움이 높다고 한다. 소진은 일반적으로 직업과 관련된 심리적 소진으로서 육체, 행동, 심리적 징후로 구분되어 설명하고 있으며[19], 학업소진은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야기되는 심리적 증상으로 학업과 관련하여 '열정의 쇠퇴'라고 한다[22]. 학업소진이 지속 될 경우 심리적인 소진으로서 고갈, 무능력, 불안 등으로 인해 교육적 효과와 삶의 질 그리고 직업적 동기가 감소한다[2,23]. 이처럼 학업소진은 신입해양경찰 공무원에게 교육과정 종료 후 졸업이라는 심리적 압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정서적 피로, 비인간화, 개인적 성취 저하 현상으로 나타나 교육적 효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22]. 학업소진은 원인에 따라 다양한 결과와 관련이 있기에 직업 교육에서 오는 스트레스 반응의 결과 신체적·정서적 고갈의 상태를 경험하며, 그 결과 개인 생활에 부정적 영향으로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에 냉소적인 태도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자신에게 자신감의 결여라는 성취감 저하와 관련이 있다[24]. 이 연구에서도 학업소진의 요인으로 신체적 고갈과 정서적 고갈, 냉소주의, 성취감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먼저 고갈과 관련하여 신체적 고갈과 정서적 고갈이다. 신체적 고갈(Physical Exhaustion)은 피 교육생의 학업에 따른 에너지 손실로 인한 피곤함, 신체적 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정서적 고갈(Emotional Exhaustion)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지는 등 정신건강이 나빠지는 현상으로서 불안감과 무력감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25]. 냉소주의(Organization

al Cynicism)는 학업 스트레스가 지속되면서 학업 등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성취감(Sense of Personal Accomplishment)은 결과나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감정이나 의도를 의미한다. 신임해양경찰공무원에게는 졸업이라는 목표하에 한정된 교육 기간에 다양한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과 평가 과정이 진행되며 자신의 학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타날 수 있는 성취감 저하는 자신의 부정적 태도로서 자신감 상실 내지 감소로 나타나 심적인 부담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21]. 학업소진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교육이 계속될 경우 신체적·정서적 고갈로 인해 불만과 부정적 생각의 증대와 같은 비효율적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26]. 물론 피교육자에게 학업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 학업소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학업소진은 교육을 완료해야 하는 중요한 목표가 있어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학습자에게는 학업소진이 존재하기 마련이다[27]. 따라서 신임해양경찰공무원의 학업소진과 관련된 요인을 찾아낸다면 교육 결과를 향상 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2.3 선행연구

성격특성 5요인과 학업소진의 선행연구의 경우 Bakker, Van, Lewig, & Dollard(2006)는 외향성의 경우 정서적 고갈의 부적 관계와 성취감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8]. 개방성의 경우 이영란(2006)은 학업소진과는 관련이 없다[29]는 연구가 있는 반면, Deary, Watson & Hogston(2003)은 정서적 고갈에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 등 상반되는 연구 결과가 있다[30]. 친화성에 대해 Deary, Watson & Hogston(2003)은 냉소주의와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30]. 이영복(2009)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 의하면 냉소주의와 낮은 성취감은 정서적인 고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결국 학업에 대한 부담감으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31]. 성실성 및 정서적 안정성, 외향성, 개방성이 학업소진과 부적 관계의 가능성이 제시되는 연구가 있는데, 대부분 연구 결과는 일관되지 않고 있다. 즉 성격특성 5요인은 학업소진과 세부적인 영향이 일관되지 않으며 대상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경찰이나 상담자의 경우 일반인과는 다른 형태의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주장이 있다

[9]. 유사 연구로서 김종선(2018)은 성격특성 5요인 중 외향성, 개방성, 신경증은 역할 모호에 유순성, 개방성, 신경증은 역할갈등이라는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1]. 성격특성 5요인과 학업소진은 직업군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신임해양경찰공무원들은 공적 직업인(Formal Worker)과 업무적 성격이 강한 교육 그리고 규칙적인 활동과 구체적인 일과 수행에서 오는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해 학업에 대한 냉담과 고갈과 같은 증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3. 연구 설계

3.1 분석의 틀 및 가설

이 연구의 목적은 신임해양경찰공무원의 성격특성 5요인과 학업소진과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배경과 같이 성격특성 5요인과 학업소진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성격특성 5요인을 독립변수로 학업소진은 종속변수로 설정하되 독립변수의 하위 변인은 외향성, 신경성, 성실성, 친화성, 개방성으로 학업소진은 신체적 고갈, 정신적 고갈, 냉소주의, 성취감 저하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인 학업소진을 다중 변인으로 설정한 이유는 신임해양경찰공무원의 성격특성 5요인별로 나타날 수 있는 교육적 결과에 대해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한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설계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은 2021년 3월에 해양경찰 교육원에 입교 중인 해양신임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조사 대상은 200명의 신임경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불성실 답변을 한 2명을 제외한 총 198개의 설문지를 연구에 활용하였다.¹⁾ 연구분석 방법은 SPSS WIN 20.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의 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가설을 설정하였다.

대가설: 성격특성 5요인의 하위변인은 학업소진의 하위변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이 연구에서 주요 대상은 신임해양경찰공무원이기 때문에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 연구 특성상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배제한 점은 이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3.2 설문지 구성

성격특성 5요인은 개인의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도구로서 개인별 상황에서 인지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그 상황에 대처하는 자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인지 과정에 영향을 주는데, 특히 학업소진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23]. 이 연구의 진행을 위해 성격특성 5요인인 외향성, 신경성,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 학업소진의 하위 요인으로 신체적 고갈, 정서적 고갈, 냉소주의, 성취감 저하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격특성 5요인의 경우 외향성(extraversion)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특징으로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적극성, 사교성, 자기주장, 활동성, 주도성 등을 의미한다[13]. 신경성(neuroticism)은 본인 스스로 정서적으로 위협받지 않으려는 성향으로서 교육과정에서의 통제 정도를 의미하며[32]. 성실성(conscientiousness)은 책임감과 신뢰적 성향으로서 사회적 규범과 원칙을 준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33]. 친화성(Agreeableness)은 타인 관계 유지에서 나타나는 호감성, 친근성의 정도로서 타인에 대한 신뢰, 존중 그리고 관계의 유지를 의미하며[13].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은 지적 자극과 변화 정도 그리고 다양성을 선호하는 정도를 의미한다[32]. 소진은 개인에게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생의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증상을 의미하며, 학업소진이란 교육기간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업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증후군으로서 피교육자가 학업에 대한 감정으로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업에 대한 냉소적이며 무능감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34][35]. 구체적으로 Pine & Maslach(1978)은 소진을 신체적, 정서적 고갈, 냉소주의, 성취감 저하로 구분하였다. 신체적 고갈(physical exhaustion)과 정서적 고갈(emotional exhaus-

tion)은 교육생의 학업에 따른 에너지 손실로 인한 신체적 피곤함과 긴장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육생의 무력감, 수동적, 스트레스로 정의한다[36]. 냉소주의(cynicism)의 경우 신입해양경찰에 대한 관심과 열의의 축소와 교육생의 소극적인 태도를 의미하며, 성취감 저하(Reduced accomplishment)는 경찰 업무 관련 자신감과 역할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의 감소로 정의한다. 이러한 조작적 정의를 중심으로 이 연구에서 활용한 척도는 성격특성 5요인의 척도는 Costa & McCrae(1992)가 제시한 Big5 모델의 정의와 안창규·이경임(1996)이 번역 제작한 NEO-PI-R(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37]과 김승연(2018)이 활용한 척도를[34], 학업소진의 경우 Bresó, Salanova & Schaufeli(2007)가 제안한 MBI-SS(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척도를 박일경 외(2010)가 변안한 MBI-SS의 내용[9]과 경찰관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성환(2013)의 척도를 중심으로 신입해양경찰공무원에게 적합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구성하였고 LIKE RT 5점 척도를 적용하였다[38]. 설문을 인용한 김승연(2018)의 연구에서는 KMO값이 0.864, 김성환(2013)의 KMO값은 0.889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작적 정의와 참고문헌은 Table 1과 같다.

4. 연구 결과

4.1 요인분석 결과

Table 2는 연구의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의 요인분석 결과이다. 이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모든 변수의 Cronbach Alpha 값은 0.6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성격특성 5요인 중 친화성은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Table 1. Concepts and references of a Variable

a major variable	sub-variable	concept	references
Personality Factors	neuroticism	Degree of curriculum control	Costa & McCrae(1992), C. G. An-K. I. Lee (1996), S. Y. Kim (2018)
	conscientiousness	adherence to social norms	
	extroversion	Interacting with others	
	openness to experience	the degree of intellectual stimulation	
	agreeableness	Maintaining relationships with others	
Burn out	Reduced accomplishment	a decrease in problem-solving skills	Bresó, Salanova & Schaufeli(2007), I. G. Park-S. M. Lee-B. Y. Choi-J. Y. Lee(2010), S. H. Kim (2013).
	emotional exhaustion	educational stress	
	physical exhaustion	physical exhaustion	
	cynicism	a negative attitude	

Table 2. Results of reliability analyses

item	factor analysis						Cronbach's α
	neuroticism	conscientiousness	extroversion	openness to experience	agreeableness	communality	
C17	.882					.842	.915
C20	.869					.833	
C18	.859					.782	
C19	.840					.807	
C16	.791					.689	
C11		.799				.660	.855
C12		.760				.795	
C15		.747				.753	
C13		.710				.632	
C14		.658				.586	
C5			.828			.822	.773
C2			.750			.705	
C24				.802		.713	.642
C21				.676		.656	
C22				.587		.575	
C25				.444		.715	
C10					.810	.716	
C6					.678	.638	
C8					.466	.502	
eigen-value	4.301	3.477	2.06	1.887	1.695		
variance	22.636	18.299	10.842	9.931	8.921		
item	factor analysis					Cronbach's α	
	reduced accomplishment	emotional exhaustion	physical exhaustion	cynicism	communality		
S15	.854				.847	.909	
S11	.845				.818		
S10	.804				.748		
S12	.788				.686		
S14	.702				.633		
S13	.661				.696		
S19		.766			.713	.875	
S18		.748			.795		
S21		.719			.736		
S17		.709			.640		
S20		.672			.652		
S1			.847		.833	.912	
S3			.792		.827		
S2			.785		.836		
S4			.659		.654		
S5			.546		.722		
S6				.789	.815	.871	
S7				.697	.707		
S8				.605	.748		
eigen-value	4.272	3.572	3.571	2.691			
variance	22.486	18.798	18.796	14.161			

Table 3. Relationships between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and physical exhaust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Standard error	β	t	Significance probability	Tolerance limit
physical exhaustion	Constant	.271		3.843	.000	
	extroversion	.091	.249	3.540	.001	.681
	conscientiousne	.123	.004	.053	.958	.562
	neuroticism	.073	.499	7.953	.000	.856
	openness to experience	.114	-.029	-.449	.654	.780
	R= .619, R ² =.384, modified R ² =.370, F=28.465, p=.000, Durbin-Watson=2.164					

4.2 연구가설 검증 결과

신임해양경찰공무원의 성격특성 5요인의 하위변인과 학업소진의 하위변인인 신체적 고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검정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먼저 성격특성 5요인의 하위변인 중 외향성과 학업소진 하위변인인 신체적 고갈의 검정 결과는 t값이 3.540(p=0.001)로 나타나 채택되었으며, 성격특성 5요인 중 신경성의 검정 결과는 t값이 7.953(p=0.000)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성격특성 5요인 하위변인 중 성실성은 t값이 .053(p=.958)으로 나타나 기각되었으며, 성격특성 5요인 중 개방성은 t값이 -.449(p=.654)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28.465의 수치이며, 회귀식에 대한 R²=.384로 38.4%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은 2.164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임해양경찰공무원의 성격특성 5요인 하위변인과 학업소진 하위변인 중 정서적 고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검정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 성격특성 5요인 하위변인 중 외향성과 정서적 고갈의 검정 결과는 t값이 3.784(p=0.000)으로 채택되었으며, 성격특성 5요인 하위변인 중 신경성과 정서적 고갈의 검정 결과는 t값이 5.933(p=0.000)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그러나 성격특성 5요인 하위변인 중 성실성과 정서적 고갈의 검정 결과는 t값이 .581(p=.5625)로 나타나 기각되었으며, 성격특성 5요인 중 개방성과 정서적 고갈의 검정 결과는 t값이 1.055(p=.293)으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23.334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²=.341로 34.1%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은 1.700으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임해양경찰공무원의 성격특성 5요인의 하위변인

이 냉소주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검정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먼저 성격특성 5요인 하위변인 중 신경성은 학업소진 하위변인인 냉소주의 검정 결과는 t값이 11.732(p=0.000)로 나타나 채택되었으며, 성격특성 5요인 중 개방성과 냉소주의의 검정 결과는 t값이 3.395(p=0.001)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그러나 성격특성 5요인 하위변인 중 외향성과 성실성은 학업소진 하위변인 냉소주의의 검정 결과는 각각 t값이 .892(p=.373), t값이 .874(p=.383)으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53.566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²=.539로 53.9%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은 1.595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임해양경찰공무원의 성격특성 5요인의 하위변인은 학업소진 하위변인인 성취감 저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검정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먼저 성격특성 5요인 하위변인 중 성실성과 학업소진 하위변인 성취감 저하의 검정 결과는 t값이 2.868(p=0.005)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또한 성격특성 5요인 하위변인 중 신경성과 학업소진 하위변인 성취감 저하의 검정 결과는 t값이 7.452(p=0.000)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그러나 성격특성 5요인 하위변인 중 외향성과 성취감 저하의 검정 결과는 t값이 .981(p=0.328)로 나타나 기각되었으며, 성격특성 5요인 하위변인 중 개방성과 성취감 저하의 검정 결과는 t값이 1.889(p=0.060)으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에서 32.517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²=.415로 41.5%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은 1.870으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able 4. Relationships between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and emotional exhaust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Standard error	β	t	Significance probability	Tolerance limit
emotional exhaustion	Constant	.253		2.141	.034	
	extroversion	.084	.276	3.784	.000	.686
	conscientiousne	.112	.047	.581	.562	.570
	neuroticism	.068	.387	5.933	.000	.860
	openness to experience	.106	.072	1.055	.293	.786
R= .584, R ² =.341, modified R ² =.327, F=23.334, p=.000, Durbin-Watson=1.700						

Table 5. Relationships between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and cynicism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Standard error	β	t	Significance probability	Tolerance limit
cynicism	Constant	.199		-1.054	.293	
	extroversion	.067	.054	.892	.373	.681
	conscientiousne	.090	.059	.874	.383	.562
	neuroticism	.054	.636	11.732	.000	.856
	openness to experience	.084	.193	3.395	.001	.780
R=.734, R ² =.539, modified R ² =.529, F=53.566, p=.000, Durbin-Watson=1.595						

Table 6. Relationships between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and Reduced personal accomplishment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Standard error	β	t	Significance probability	Tolerance limit
Reduced accomplishment	Constant	.180		2.765	.006	
	extroversion	.060	.067	.981	.328	.681
	conscientiousne	.081	.216	2.868	.005	.562
	neuroticism	.049	.455	7.452	.000	.856
	openness to experience	.076	.121	1.889	.060	.780
R= .645, R ² =.415, modified R ² =.403, F=32.517, p=.000, Durbin-Watson=1.870						

5. 결론

이 연구에서는 신입해양경찰공무원의 성격특성과 학업소진 관계를 통해 신입해양경찰공무원의 효과적인 교육 성과를 위한 방안 모색에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입해양경찰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성격특성 5요인은 외향성, 신경성, 성실성, 개방성, 친화성으로 학업소진은 신체적 고갈, 정서적 고갈, 냉소주의 성취감 저하로 구성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성격특성 5요인 중 친화성은 제외되었으며, 연구 결과 성격특성 5요인 중 신체적 고갈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외향성 요인과 신경성 요인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고갈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외향성 요인과 신경성 요인으로 신체적 고갈과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냉소주의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신경성 요인과 개방성 요인이었고, 성취감 저하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신경성 요인, 성실성 요인으로 나타났다. 성격특성 5요인 중 외향성 요인과 신경성 요인 그리고 성실성 요인은 공통적으로 신체적 고갈과 정서적 고갈 그리고 성취감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외향성,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이 학업소진 하위변인 탈진, 냉담, 학업 무능감에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정서적 안정성은 학업소진 중 탈진, 성실성은 냉담과 학업 무능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서적 안정성이 낮은 집단이 신체적 고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선행연구와 다른 점과 주요 분석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외향성 요인은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신경성의 경우 교육과정에서의 민감 정도, 성실성

의 경우 책임감 등을 의미하는데 교육과정에서 오는 신체적 그리고 정서적 피로감과 단체생활과 교육과목 이수율 평가 그리고 졸업이라는 심적 부담감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둘째, 성실성의 경우 자신에 대한 목표에 대한 자신의 능력과 책임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성취감에 대해 긍정적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신입해양경찰공무원은 성실성이 높지만, 이론보다는 실무와 관련된 교육적 내용, 신입경찰관 본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평가 결과 그리고 평가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 때문으로 보인다.

셋째, 개방성 요인의 경우 지적 자극과 변화에 대한 선호를 의미하는데 신경성 요인과 함께 냉소주의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성 요인과 개방성 요인은 신입해양경찰공무원이라는 신분에서 오는 교육기관의 단체생활 통제, 입교 전 기대하였던 해양경찰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신입해양경찰공무원으로서 받은 교육과정이 다소 다르게 인식하거나 해양경찰의 한계에 대한 인식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분석에 대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학업소진에 가장 큰 예측력을 갖는 성격특성 5요인은 신경성으로서 신입해양경찰공무원의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신입해양경찰공무원 교육과정 중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성격특성은 신경성으로서 신입해양경찰공무원의 심리적 여유 내지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현재의 교육 프

로그램 중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채용 분야의 변화와 인재개발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신입해양경찰공무원은 관심뿐만 아니라 가장 열정적인 직무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 현재의 채용 방법에서 직무 성격상 분야별 채용 방법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신입해양경찰공무원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근무 중에도 개인의 성향을 개발할 수 있는 인재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해양경찰관으로서 가장 적합한 분야로 배치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셋째, 해양경찰 조직 내 상담심리사 배치를 통해 직무 만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상담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34]. 해양경찰은 업무에서 오는 PTSD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향후 해양경찰의 PTSD 관련 연구를 통해 그 심각성과 필요한 제도적 연구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비록 이 연구는 신입해양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점에서 연구 한계가 있지만, 지금까지 신입해양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격특성 5요인과 학업소진이라는 관련 연구가 없는 시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생각한다. 향후 신입해양경찰공무원의 성격특성 5요인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통해 해양경찰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언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J. S. Kim, (2018).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Five Personality Factors of KCG Members.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17(2), 59-60. DOI: 10.38084/2018.17.2.3
- [2] Ten Brummelhuis, L. L., Ter Hoeven, C. L., Bakker, A. B. & Peper, B. (2011). Breaking through the loss cycle of burnout: The role of motivation.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84(2), 268-287. DOI : 10.1111/j.2044-8325.2011.02019.x
- [3] S. H. Kang, (2018). *The Effects of Big 5 Personality Traits of superior on Job Attitude of subordinates: The Mediating Effects of Leader-Member Exchange*,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gu
- [4] Greenberg, J. & Baron, R. A. (2000). *Behavior in Organizations: understanding and managing the human side of work*. NJ, Prentice Hall.
- [5] Piedmont, R. L. (1998). *The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Clinical and research applications*. NY, Plenum Press.
- [6] Sampson, G. (1989). Language acquisition: growth or learning?. *Philosophical papers*, 18(3), 203-240. DOI : 10.1080/05568648909506320
- [7] Buss, A. H. (1989). Personality as traits. *American psychologist*, 44(11), 1378. DOI : 10.1037/0003-066X.44.11.1378
- [8] McCrae, R. R. & Costa, P. T. (2008). Four ways five factors are basic.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13(6), 653-665. DOI : 10.1016/j.addbeh.2014.01.000
- [9] I. G. Park, S. M. Lee, B. Y. Choi & J. Y. Lee. (2010). Relationship Between the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and Academic Burnout.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4(1), 81-93. DOI : 10.21193/kjspp.2010.24.1.006
- [10] Barrick, M. R. & Mount, M. K. (1991). The big five personality dimensions and job performance: a meta-analysis. *Personnel psychology*, 44(1), 1-26. DOI : 10.1111/j.1744-6570.1991.tb00688.x
- [11] Bernerth, J. B., Armenakis, A. A., Feild, H. S., Giles, W. F. & Walker, H. J. (2007). Is personality associated with perceptions of LMX? *An empirical study. Leadership & Organization Development Journal*, 28(7), 613-631. DOI : 10.1108/01437730710823879
- [12] Smith, M. A. & Canger, J. M. (2004). Effects of supervisor "big five" personality on subordinate attitudes. *Journal of business and psychology*, 18(4), 465-481. DOI : 10.1023/B:JOBU.0000028447.00089.12
- [13] T. Y. You.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ve factors of personality and academic performance.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onference*, 1(pp.263-276), Seoul.
- [14] S. M. Kwon. (2017). *personality psychology for human understanding*, Seoul, Hakchisa.
- [15] N. J. Cho, M. H. Lee & I. K. Kim. (2015). Study on Learning Experiences and Development of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Counseling.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6(3), 303-324. DOI : 10.15703/kjc.16.3.201506.303.
- [16] Salgado, J. F. (1997). The Five Factor Model of personality and job performance in the European Communit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2(1), 30. DOI : 10.1037/0021-9010.82.1.30
- [17] McCrae, R. R. & Costa, P. T. (2003). *Personality in adulthood: A five-factor theory perspective*. NY, Guilford Press. DOI : 10.4324/9780203428412
- [18] Lev, S., Tatar, M. & Koslowsky, M. (2018). Teacher self-efficacy and students' ratings. International,

- Journal of Educational Management*, 82(1), 30-43.
- [19] Freudenberger, H. J. (1974). Staff burn-out. *Journal of Social Issues*, 30(15), 159-165. DOI : 10.1111/j.1540-4560.1974.tb00706.x
- [20] Maslach, C. & Jackson, S. E. (1981). The measurement of experienced burnout.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2), 99-113. DOI : 10.1002/job.4030020205
- [21] W. I. Lee (2012),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fficacy,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burnout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Doctoral dissertation, Won-Kwang University, Ik-San.
- [22] H. A. Lee (2011). *The effect of perfectionism on academic engagement and academic burnout : the mediating effects of coping flexibility*, Doctoral dissertation, Han Yang University, Seoul.
- [23] E. J. Na, S. Y. Kwon, B. H. Kong & Y. K. Kim. (2017).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 of Personality Traits, Academic Burnout, and Career Stress of Undergraduate Students in Counseling Major.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8(6), 281-301. DOI : 10.15703/kjc.18.6.201712.281
- [24] Meier, S. T. & Schmeck, R. R. (1985). The burned-out college student: A descriptive profile.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6, 63-69.
- [25] D. I. Min. (2007). *The Effects The Effects Effects of Family Strengths, Strengths, Strengths, School Life Health and Ego-Resilience and Ego-Resilience Ego-Resilience on Mental Health of Adolescents*, Doctoral dissertation, In-Ha University, Incheon.
- [26] M. S. Beak. (2011). *Effects of academic environment and coping on academic burnout in the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Han-Nam University, Daejeon.
- [27] Bresó, E., Salanova, M. & Schaufeli, W. B. (2007). In search of the "third dimension" of burnout: Efficacy or inefficacy?. *Applied psychology*, 56(3), 460-478. DOI : 10.1111/j.1464-0597.2007.00290.x
- [28] Bakker, A. B., Van Der Zee, K. I., Lewig, K. A. & Dollard, M. F.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and burnout: A study among volunteer counselor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6(1), 31-50. DOI : 10.3200/SOCP.146.1.31-50
- [29] Y. R. Lee. (2006). *The Relation between Burnout and the Big Five among Korean Counselors*, Master dissertation, Suk Myung University, Seoul.
- [30] Deary, I. J., Watson, R. & Hogston, R. (2003). A longitudinal cohort study of burnout and attri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43(1), 71-81. DOI : 10.1046/j.1365-2648.2003.02674.x
- [31] Y. B. Lee. (2009).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tudy Exhaustion Scale for Adolescents*, Master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 [32] S. Y. Kim. (2017).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ig 5 Personality Traits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Job Exhaustion: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iency and Job Stress*, Doctoral dissertation, Seoul Venture University, Seoul.
- [33] T. Y. Han. (2005). Adolescents' Stress at School: Moderation Effects of Personality and Emotional Intelligence.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2), 177-197.
- [34] S. Y. Kim. (2018).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ig 5 personality traits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job exhaustion :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iency and job stress*. Doctoral dissertation, Seoul Venture University, Seoul.
- [35] D. H. Lim. (2017).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resilience in influence of academic burnout experienced by high school students on career decision-making stress*, Doctoral dissertation, Ho Seo University, A-San
- [36] Pines, A., & Maslach, C. (1978). Characteristics of staff burnout in mental health settings. *Psychiatric services*, 29(4), 233-237. DOI : 10.1176/ps.29.4.233
- [37] C. G. An & K. I. Lee. (1996). Clinical Application of The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8(1), 65-79.
- [38] S. H. Kim. (2013). *The effects of Korean police officer's emotional labor on burnout : focused on mediated effect of job stress*. Doctoral dissertation, Dong Guk University, Seoul.

이진환(Jin-Hwan Lee)

[정회원]



- 2010년 2월 : 충남대학교대학원 박사수료
- 2019년 3월 : 사단법인 한국공공행정연구원 부원장
- 관심분야 : 공법, 헌법
- E-Mail : baboo8063@daum.net